

매년 40만명 혜택... 1조원 추가 소요

■ 문제점·해결과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2006년생)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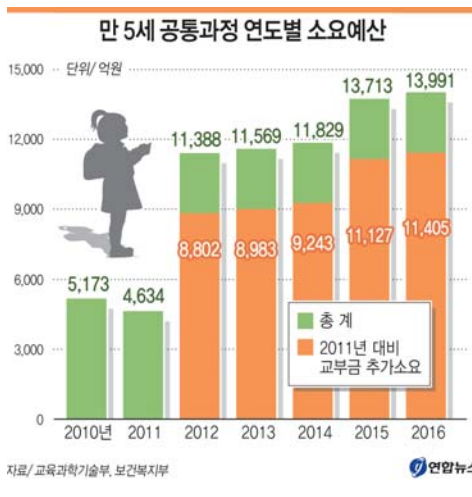
그러나 기존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유치원 교육비에 어린이집 보육비까지 추가돼 상대적으로 초·중·고에 대한 교육예산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 5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시설 등 인프라 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 교육재정 악화 우려=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 취학 전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육비·보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골자는 2006년 출생 어린이가 만 5세가 되는 2012년부터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의 3분의2 수준인 월 20만원, 2013년엔 22만원, 2014년엔 24만원, 2015년 27만원으로 확대하고 2016년 30만원으로 거의 전액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2년 1조 1388억원, 2013년 1조 1569억원, 2014년 1조 1829억원, 2015년 1조 3713억원, 2016년 1조 3991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만 5세 유치원비는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해온 현행 방식을 바꿔 2012년부터 유치원비·어린이집 보육비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돼 교육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

실제 일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급식에 우선 사용하면서 다른 교육사



김황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에서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고 교육예산 투자 위축 우려 교육시설 인프라·교육격차 해소 관건

업에 차이가 빚어진다는 논란이 있는 실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이 초·중·고 교육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일부를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로 지원하면 초·중·고 교육예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교과부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인 규모가 차츰 늘어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1조 8000억원이 늘었고, 2012~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3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만5세 교육·보육에 연간 1조원을 들여도 나머지

초·중·고 지원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격차 해소 관건=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계에서는 “공통과정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는 이현옥 회장은 이날 “유치원 선생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이런 자격이 없는 보육교사가 많아, 국가가 자질 기준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의무교육 기관으로 격상되면서 교육 당국의 장학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이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교육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인기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자가 몰리는 편중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비 지원이 전면 확대되면 인기가 좋은 기관에만 사람이 몰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시설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 영어 학습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어린이 영어 학습들이 ‘국제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란 이름으로 기존 유치원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공통 교과 과정이 영어 수업을 포함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유치원 원장은 “초등학교부터 영어 배우는 만큼 선행 학습을 해야 한다는 학부모가 많다. 공교육이라면 이런 수요를 무조건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초·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은 아니다

■ 문답풀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교육·보육비도 전체 가정에 지원되면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부모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아이가 만5세가 되면 무조건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정부가 제시한 만5세 ‘공통과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만 5세가 된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학부모가 결정한다. 공통과정을 마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취학 직전 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정 공통 과정이 생기면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이와 연동해 약간 손질될 수 있다. 게다가 만5세 어린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

어지는 면도 있다. 정부가 “사실상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언제부터, 누가 적용 대상이 되나.

▲2006년 출생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아이가 만 5세가 되는 2012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의 3분의2 수준인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2013년에 만5세가 되는 2007년생 아동은 22만원, 2008년생은 24만원, 2009년생은 2015년 27만원을 지원받고 2010년생은 2016년에 30만원으로 거의 전액 수준을 지원받는다.

월 30만원을 지원받겠다고 학부모 부담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급식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가 사립유치원이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가 월 31만원이다. 그리고 유치원에 따라 이보다 많은 40만~50만원 선이 되기도 한다.

급식비 등을 빼면 사립유치원 평균교육비는 월 31만3000원, 대부분이 사립 어린이집이 24만 8000원 수준이다. 또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나.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국민이든 원하면 만5세 자녀에 대해 공통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 교육·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하위 70%의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 7000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

월 30만원을 지원받겠다고 해도 저소득층은 여전히 부담일텐데.

▲소득 하위 70% 가구의 만 4~5세 어린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17만7000원으로 동일하다. 만 3세는 19만7000원이다. 교육비 이외에 급·간식비나 재

로비, 통학경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지원 수준은 모두 다르다.

-‘영어 유치원’은 제외된다.

▲현재 종일반 비용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 사립은 최고 5만원, 공립은 최고 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종일반 비용은 유치원마다 차이가 큰데 도시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종일반 비용은 공립 1만9000원, 사립 8만8000원이다. 따라서 공립은 지원액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사립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종일반 비용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전체 가정에 5만~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어 유치원’에 다녀도 지원받나.

▲현행 규정상 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 ‘영어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적용되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없다.

/연합뉴스

■ 내년 도입 ‘만5세 공통과정’ 내용은

하루 3~5시간 편성... 인성교육 강화

정부가 ‘만5세 공통과정’을 내년부터 도입하지만 교육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유치원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의 만5세 어린이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표준보육과정’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보육과정은 모두 만 3~5세를 통합해 3개 수준별로 제시하는 형태다.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만 5세를 별도로 떼어

내 ‘만5세 공통과정(Common Curriculum for Children 5)’을 가르치게 된다.

교과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고시할 만5세 공통과정은 유아기에 필요하거나 강조해야 할 기본능력을 자기관리, 창의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민의식, 문화이해 등으로 설정한다.

또 공통과정 전반에 기본생활 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창의성, 인성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역별 편성시수와 교육시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통과정은 현행 유치원처럼 하루 3~5시간 정도로 편성토록 하되, 공통과정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초등학교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교육과정의 자율편성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한다.

교과부는 “전체적으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큰 차이 없는 내용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만5세의 무교육(보육)화가 되지만 “지나치게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을 강조하는 등 지식위주 교

육은 지양하며, 생애 초기의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5세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1,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도 약간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만5세 공통과정은 올해 5~7월 중 유아정책 연구소에 위탁해 유아교육·보육 및 초등교육 과정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마련돼 올해 8월 고시된다.

공통과정을 가르칠 교사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2급 자격소지자로 이들을 위한 해설서가 개발되며, 연수도 올해 9~12월 실시된다.

/연합뉴스

MAKE IT EASY!
EZ PHOTO VER. MA BRIDGE 이지포토
PHOTO / IMAGE / GRAPHIC / CG / DESIGN / UCC & BLOG

아직도 값비싼 가격의 외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소프트웨어 불법카피를 사용하십니까?

이지포토 EZ PHOTO와 함께 하십시오!

EZ PHOTO는 무엇인가?
이지포토는(EZ PHOTO)는 FSGSOFT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사진편집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S/W로는 유일하게 ADOBE PHOTOSHOP과 비교 가능하며, 전문적인 사진보정 및 편집, 자동화된 이미지 보정과 그래픽작업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포토샵에 비하여 매우 쉬운 인터페이스 및 작업환경은 초보자도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사진편집 및 그래픽 작업이 가능하게 하여줍니다. 이지포토는 2009년 대한민국 S/W 공모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Z PHOTO는 왜 필요한가?
* 포토샵에 비해서 1/10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포토S/W 대중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적인 사진편집 S/W보다 일반인 초보자, 학생들이 쉽게 고품질 사진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EZ PHOTO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 S/W적격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조달 나라장터에 등록 되었습니다
* 서울시, 경기도청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울곡연수원, 인재 개발원 서울시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정부 교육기관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이지포토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 이지포토는 2009년 대한민국 S/W공모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2008 에듀엑스포에서 이러닝 최우수상 교과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MAKE IT EASY!
EZ PHOTO
이지포토의
주요기능

- 어도비 포토샵과 동일
- 멀티레벨 레이어 및 효과레이어 (MULTI LEVEL LAYER & EFFECT LAYER)
- 어도비 포토샵 PSD파일 호환
- 디카자동인식보정 / 간편보정 / 자동사진보정기능
- 전문적인 컬러보정기능 (PROFESSIONAL COLOR MATCHING) 컬러조정 / 자동기능/ 컬러밸런스 / 색조채도/ 레벨 / 커브 / 포스터화 / ICC프로파일
- 다양한 브러쉬(BRUSH), 펜툴 및 선택도구 지원
- 색상채널 / 알파채널 / 스팟채널 ETC
- 다양한 사진 필터 및 그래픽틀 지원

FSGSOFT
이지포토 [EZ PHOTO]
정부조달
나라장터 등록!

S&T 서울시스템기술(주)
이지포토 광주·전남총판

TEL : 062-226-4093 | FAX : 062-226-4095
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번지 전일빌딩 9층